



7면

익산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차단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음 5월 13일) 제25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김윤덕 국회 스카우트연맹 부회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잰버리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새만금 잰버리 성공개최 결속다져

조직위 창립총회 갖고 위원장 선임 등 진용 갖춰 25명 발기인 참여, 본격적인 행사 준비체제 돌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대외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청소년의 교류가점인 될 새만금과 전북 만들기에 본격 돌입했다.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는 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해 조직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직위원회는 새만금세계잰버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부와 전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면서 잰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을 비롯해 행사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 앞으로 세계잰버리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하고 향후 조

직위원을 15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7월 중에는 부처와 전북도 공무원 스카우트연맹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사무국을 설치, 본격적인 행사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 이정숙 여가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에 선임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에 취임했다. 조직위원회 임원들이 확정돼 아쉽게 출범함에 따라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분야별 준비상황들이 가시화됐다. 또한 세계잰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창립 후속조치로 정부차원의 지원체제인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 세계잰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고 위임사항 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게 된다. 조직위는 잰버리 범포섭을 위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세계잰버리 홍보활동을 추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새만금을 국내에 알리는 일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참여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2023 세계잰버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잰버리 부지 매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농지 기금을 활용 잰버리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잰버리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매입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 프레젠테이션(세계잰

버리 대비 사전행사)부지(1.7km)에 대해서는 우선 매립,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에 문제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등 잰버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작년 7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 잰버리 개최 이전에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잰버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축제가 될 것이다'며 '첨단 IT기술과 깨끗한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이 생태문명의 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에는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교육 자존감 바로 세우고 아이들 살리는 학교자치 완성”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

청렴·교육복지 등 성과 꼽아 변화·혁신·환경교육 강조



“지난 10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위한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걸어야 할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 10년의 성과로 ‘청렴, 혁신학교 정책, 교육복지’를 꼽았다. 특히 “교육현장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전북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의 백교백색 혁신학교 정책 덕분에 학교와 지역이 살아났고, 이제는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마을교육생태계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에 힘썼다”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교복지·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교육이 고민하고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기준이 됐고, 또 교육부의 초·중학교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전국 확대, 자사고·외고의 일관고 전환 등은 전북교육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

라고 소개했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 완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다짐할 삼아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자치를 꽃 피울 것”이라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무상교육을 완전한 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국가는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과 대입특례를 받은 인재를 요구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국가는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과 대입특례를 받은 인재를 요구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보육·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 중심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양질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공간 혁신, 초등학교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환경교육에도 힘썼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는 코로나19 재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